



보도 일시	<전매체> 7.13(목) 배포 즉시 * 통신·방송·인터넷 동일	배포 일시	7.13(목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

담당 부서	기술협력실	책임자	실 장	지명근 (044-300-0440)
		담당자	주 임	이영목 (044-300-0445)
배포 부서	홍보전략팀	책임자	팀 장	김민철 (044-300-0720)
		담당자	책 임	정민규 (044-300-0721)

TIPA,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 지원

- 국내 중소벤처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현지 48개 바이어와 기술교류 상담 진행
- 보유 기술·제품의 현지 이전, 생산·유통 등과 관련한 11건의 MOU 체결 성과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원장 이재홍, 이하 TIPA)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현지 기업 간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한-인도네시아 기술교류 상담회를 12일(수)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개최했다.
- 중소벤처기업부 융복합기술교류촉진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상담회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기술이전, 합작투자, 현지 라이선싱 등 기술무역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열렸다. 지난해 첫 상담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 행사다.
-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로, 현지의 핵심 산업 분야와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바이오·의료(스마트팜, 의료기기 등), 기계·소재(제어시스템, 방수 소재 등)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.
- 이번 상담회에서는 10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48개 현지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으며,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개최한 만큼 양국 기업의 높은 관심에 따라 전년 대비 매칭률이 약 41%p 상승했다.

- 또한, 현장에서는 향후 기술교류 및 협업을 위한 세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, 보유 기술·제품의 현지 이전, 생산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1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했다.
-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적인 사항으로 이번 상담회를 통해 체결한 업무협약이 향후 기술수출 계약 등으로 이어져 한-인도네시아 간 기술 무역 성과 창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TIPA 기술협력실 지명근 실장은 “아세안 최대 경제 규모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에 국내 중소벤처기업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” 며, “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 중소벤처기업 및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간에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” 고 밝혔다.
- TIPA는 우수한 기술·제품에 대한 해외 판로 확대와 성과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우즈베키스탄, 베트남, 스위스 등 다양한 국가와의 기술교류 상담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.

※ (사진 설명) TIPA 한-인도네시아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현장 전경